

## 『팔월의 빛』에 나타난 모성적 태도

최선화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Mothering Attitude in 『Light in August』

Sunwha Choi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요약**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의 여성 인물들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는 주로 어머니의 모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의 가부장제 하에서 작가가 관심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핵심적인 역할은 가족 단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본인의 가족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단 혈연관계와 상관없을지라도 다른 개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관계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팔월의 빛』에서 리너 그로브는 비록 혈연관계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하이타워에게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용적 모성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가 소외된 삶을 극복하고 자연적 삶의 흐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조 크리스마스의 비극이 실제적인 어머니의 부재와 이를 대신할 모성의 환경이 부재함으로써 비롯된 것을 살펴보면 아이가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외부영향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모성적 환경, 아이의 정체성과 사회화, 성숙한 인격, 수용적 모성태도, 진정한 자아

**Abstract**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his different mothering environments on the formation of the children's identity and sociality, and on their growing up into a mature personality under various types of mothering attitudes, this thesis is to tell the significance of the mothering attitude in Faulkner's novel, *Light in August*. Lena Grove's "tolerant mothering attitude" in *Light in August* accepts the existence of things as they are and takes the substance over the form. The message for the writer to deliver must be Lena's "tolerance and holding mothering attitude-environment." And it is the most required for a child to establish his or her identity and sociality as a human being and to grow up into a mature person.

**Key Words** : mothering attitude-environment, children's identity and sociality, mature personality, tolerant mothering attitude, true-self

#### 1. 서론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는 “나는 인물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1]. 포크너는 인간이 열정과, 희생과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영혼을 갖고 있으므로 영원하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신념은 그의 작품에서 기저를 이루고 있다. 포크너는 선과 악의 양면을 가진 자기 모순적 존재인 인간이 끊임 없이 자신과 투쟁하며 마침내 내면적 갈등을 극복한 자

\*Corresponding Author : Sunwha Choi(choisw@anyang.ac.kr)

Received December 7, 2018

Revised January 2,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신의 참모습을 작품에 묘사하고자 했다[2].

포크너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미국 남부사회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당시 남부사회는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뒤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한편,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평등 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의 중심이 북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남부사회는 역사·의식·관습·전통 등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적 박탈감과 혼란을 겪으며, 이러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남부의 신화를 재창조하려 했다.

포크너는 작품 속에서 남부 백인계층 가정의 가족관계를 중요한 소재로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긍정적이며 이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성/어머니이다. 이때 어머니란 혈연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까지 적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모성환경(mothering environment)을 제공하는 것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성장·사회화시킬 경우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3].

용이 말했듯이 어머니는 아이의 신체적 선행조건(physical precondition)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선행조건(psychic precondition)으로서[4] 동일시(identification)의 대상이 된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존재인 동시에 자녀의 태도와 성격유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방치하거나 실제로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혹은 가족은 적절한 모성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포크너는 자신의 작품 『팔월의 빛』(Light in August)에서 주인공 리너 그로브(Lena Grove)가 주변 인물들에게 수용적 모성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2. 본론

『팔월의 빛』은 세 갈래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첫째는 대지의 여신을 상징하고 사물의 존재를 순응하며 자연을 받아들이고 수용적 모성적 태도를 보이는 리너 그로브의 이야기이다. 둘째는 실제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적 어머니(surrogate mother)의 역할을 하는 주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조 크리스마스(Joe Christmas)의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제된 삶을 살다가 리너의 출산에 참여하며 그녀가 제공하는 모성환경을 접하면서 그때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고 생명이 존재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는 게일 하이타워(Gail Hightower)의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바이런 번취(Byron Bunch)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유일하게 모든 등장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리너는 역경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안정된 힘을 제공하는 여성 인물이다[5]. 그녀는 신과 인간에 대한 인내를 바탕으로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연민, 사랑, 그리고 회생을 실천하며 현실의 흐름에 순응하며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녀는 원초적이고 모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녀의 이러한 힘은 그녀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주변 사람에게 포용적인 모성 태도를 보여주며 대지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리너는 시골 출생으로 열두 살 때 고아가 되고 오빠의 집에 살던 중 루카스(Lucas Burch)를 만나 혼전임신을 하여 만삭의 몸이 되고, 루카스는 6개월 전에 집을 떠나 소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리너는 루카스를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해 “순수한 믿음”[6]을 갖고 긍정적으로 이 현실을 수용한다. 그러는 사이 출산일이 다가오자 리너는 거리가 멀어 그와의 소식이 중간에 끊긴 것이 아닌가 하고 먼 여행길에 나선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남부사회에서 미혼모의 임신은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리너는 돈, 먹을 것, 교통편도 없이 엘라베마주를 떠나 미시시피주에 있는 제퍼슨에 무사히 도착한다. 이는 리너가 사회적 인습·규범 등의 추상적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신과 인간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며 긍정적으로 현실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리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가족이 다 같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루카스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며 수용한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문다. 이 모습은 대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

듯 자연스럽게 보인다.

리너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인물 중에는 암스티드(Armstid) 부부가 있다. 암스티드는 리너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동정하며 도와주려 한다. 그는 리너를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재워 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 처음에 암스티드의 아내 마사(Martha)는 남편의 처사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나, 점차 리너의 호의와 겸손함에 감동하고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리너를 도와주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사 이외에도 리너는 이러한 친화력으로 바이런 번치(Byron Bunch), 바이런의 하숙집 여주인인 비어드 부인(Mrs. Beard), 게일 하이타워(Gail Hightower), 보안관,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가구상 등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리너는 삶이 어떠한 유동적인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을 모두 수용한다[7]. 이로써 다른 인물들이 추상적 가치나 인식의 미로에 빠져 고립되는 것과 달리 리너는 구체적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실존적 존재들과 충실히 연결되고, 고립된 타인들이 현실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모습은 리너 그로브라는 이름에 암시되어 있다. 리너는 그리스어 헬레나(Helena)로부터 유래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밝음’ 또는 ‘빛’이다. 그로브의 어원은 ‘작은 숲’이며 이는 ‘자연’과 대지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너 그로브란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숲속을 밝히는 빛’으로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리너는 형식적 가치나 추상적 인식의 어둠에 빠져 길을 잃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햇살의 역할을 한다.

리너에 관한 묘사가 거의 언제나 현재시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녀는 삶의 유동성을 거부하고 과거에 함몰되어 허우적대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삶의 흐름을 수용한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 역시 인식이나 가치를 초월한 존재론적 초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8].

『팔월의 빛』에서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은 조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리너와 달리 조는 현실을 부정하며, 사회가 그에게 부과한 환경·문화적 규범을 건디지 못하여 고뇌하고 방황하다가 끝내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조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조는 외형상 백인이며 자신을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 분류하지만 정작 백인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다.

조는 비극적인 삶은 어머니의 원천적인 부재에서 비롯된다. 성장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하는 여성 인물들마저도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의 생모 밀리(Milly)는 떠돌이 서커스 단원과 사이에서 조를 낳게 되고, 그녀는 난산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성환경을 박탈당했다.

조는 어머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을 흑인의 핏줄로 생각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인 외할아버지 닥 하인즈(Doc Hines)의 밑에서 자란다. 하인즈는 조에게 흐르고 있는 흑인의 피가 백인의 피를 오염시킬까 우려한 나머지 어린 외손자인 조를 보육원에 버린다. 그곳에서 조는 앨리스(Alice)라는 누나와 영양사 앳킨스 양(Miss Atkins)를 만나게 된다. 앨리스는 조에게 먹고, 씻고,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삶을 돌봐 주지만 어느 날 밤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떠나게 되고, 조는 다시 대리적 모성환경을 상실하게 된다. 앳킨스 양은 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적인 어머니의 임무를 수행하는 듯하지만, 이후에 자신이 인턴 의사와 성교하는 것을 조에게 들키자 그를 “나를 염담하다니! 너 조그만 검둥이 자식!”이라 질책하다 다음날 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1달러를 뇌물로 준다. 조는 영양사가 더 모성환경의 제공자가 아니라 성적 욕망에 가득 찬 존재이며, 자신에게 흑인의 정체성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앳킨스 양에게 받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조는 이후 여성과 모성을 거부하고, 여성을 악과 연결하여 생각하며 거부하는 병리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후 새로운 곳에 입양되어 만나게 된 맥이천(Mrs. McEachern) 부인이나 조애너(Joanna)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조는 맥이천 부인의 호의를 혼란스러워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고정하려는 조애너를 살해하게 되고, 백인 여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백인우월주의자들에 의해 쫓기다가 살해당하게 된다. 결국, 조는 현실의 존재성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인종성이라는 인위적·추상

적 가치에 매몰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그에게 실제의 어머니도, 대리적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팔월의 빛』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은 하이타워이다. 하이타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십 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자신이 쌓아둔 높은 탑 속에 가두고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하이타워는 오십 세의 아버지와 사십 세를 막 넘긴 어머니의 외동아들로 태어난다.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유령과 같은 엄격한 아버지, 늘 아픈 어머니, 그리고 늙은 흑인 하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성장한다.

하이타워의 어머니는 20년 동안 병석에만 누워있는 환자로 무기력한 존재이다. 그녀는 아들 하이타워에게 어머니로서 그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정신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병든 어머니를 보고 자란 하이타워는 공포감이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뿐, 현실과 환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는 성인이 되어서 리너를 만나 모성환경을 제공받기 전까지 사회와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이타워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늙은 흑인 하녀로부터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조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 현실에서 동일시의 대상을 찾지 못한 하이타워는 영웅적인 할아버지에 관한 과거에 친근감을 느끼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둔다[9].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가 전사했을 때 그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할아버지가 죽은 제퍼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나 정신적으로 과거에 매몰된 그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가 목사가 된 것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환상 속에 안주하며 정신적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이타워는 교회를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피난처로 생각했다. 그는 목사로서의 직분 역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인들로부터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으며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자신이 창조한 과거 속에 고립된 채 정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그가 한 개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줄 모성환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하이타워는 사랑이 아닌 정략적인 이유에 따라 결혼을 선택했고, 그래서 아내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남편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다. 결혼생활에서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에 절망한 나머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다가 마침내 한 호텔에서 투신자살하게 되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을 외면한다. 교인들은 아내의 수치스러운 남자관계, 불명예스러운 자살,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더는 참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퇴출한다. 교인들은 그에게 제퍼슨(Jefferson)을 떠나달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얼마 후 그는 복면한 사람들에게 의해 구타를 당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아내의 죽음과 신도들의 반감에 대한 하이타워의 반응을 통해서 그는 현실의 삶과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과거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할아버지의 먼 과거를 부둥켜안은 채 25년간 제퍼슨에서 자신의 이름이 상징하듯이 높은 탑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며 살고 있다.

그러던 하이타워는 리너의 출산을 돕게 되면서 자신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리너를 돕지 않으려 했으나 그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출산하자 뜨거운 승리감과 생명의 기쁨을 느낀다.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고립시키며 살아가던 그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리너의 출산과 그녀가 제공하는 모성의 태도를 대하면서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추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이 존재의 근원임을 깨닫고 과거의 환상과 외부세계로부터의 단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하이타워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남편 그리고 목사로서의 실패를 모두 그의 탓이라고 수용한다. 그는 리너라는 여성/어머니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여 고통받는 인간에 대해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인식을 가지게 되는 등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리너의 모습은 바이런을 감동하게 해 그를 활력에 찬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가정을 이루어 풍요한 삶을 지속해나갈 가능성을 보인다. 바이런은 주중에는 제재소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시골 교회로 가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일주일 내내 제재소에서 일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그는 하이타워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게 좋다고 믿었다. 그랬던 그가 리너의 순진하고도 진실한 삶의 태도에 매혹되어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가 상징하는 존재론적 실존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리너를 사랑함으로써 바이런은 새로 태어나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용기를 되찾았다. 이로써 그는 리너를 보호하고 하이타위를 변화시키고 조를 구원하겠다는 의욕을 가진다.[10] 이 작품 속에서 완전하게 변화하는 유일한 인물은 바이런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리너와 더불어 그가 이 작품 속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11].

리너가 바이런과 하이타위 등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주변 인물들에게 하는 역할은 그들이 공동체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2]. 리너는 단순히 대지의 어머니로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것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소외 정도를 비추고, 소외된 인물들이 다시 공동체의 삶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너의 출산을 도와준 후 하이타위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하이타위는 리너의 출산을 도운 후 삶에 대해 새로이 깨닫게 되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포크너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삶이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개인의 문제는 본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모두의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의 자아는 새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리너, 조, 하이타위로 구성되는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 바이런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고 그가 이들과 관계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리너를 보자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바이런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고 그녀를 도와주게 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녀의 삶은 바이런을 자연의 섭리에 끌어들이고, 이때부터 바이런은 혼자만의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 그는 리너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감명받아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두고 그녀를 도우려 하며, 곤경에 빠진 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리너와 조의 문제를 하이타위에게 전달하면서 그를 현실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그는 조를 구하기 위해 하이타위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하고 리너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퍼슨을 떠나는 리너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달 전 제퍼슨에 도착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 올 때는 혼자였으나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기와 바이런이 있다. 리너는 루카스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이런을 얻었다. 작품의 말미에 그녀는 “이런, 이런, 사람은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네. 엘라베마를 떠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테네시에 도착했네.”라는 그녀의 말에서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한 변함없는 수용적 자세를 읽을 수 있고, 이처럼 리너는 신과 인간 모두에 대해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도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로 수용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14].

### 3. 결론

작품 속에서 리너는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는 것 같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팔월의 빛’이라는 제목과 연결되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삶에 진리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준다.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냉혹하고 비극적인 가운데 리너는 따뜻한 태도로 다른 인물들을 변화시켜간다. 그녀는 추상적 가치나 인식의 미로에 빠져 소외된 이들이 현실로 돌아와 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적·대리석 모성환경의 부재로 인해 자기 파괴적인 죽음에 이른 조와 달리, 열두 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리너는 자연적 생명의 흐름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스스로 수용적 모성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타위와 바이런 같은 인물들도 함께 구원한다.

포크너가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정체성·사회성을 형성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인격체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수용적인 모성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리너처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 REFERENCES

- [1] F. L. Gwynn & J. L. Blotner. ed. (1975)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58*. Charlottesville: Virginia UP. 19.
- [2] F. J. Hoffman & O. W. Vickery. ed. (1960). *William Faulkner: Three Decades of Critic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348.
- [3] Allison Jaggar. (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Totowa, N. J.: Roman & Allanheld. 256.
- [4] C. G. Jung. (1968).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Vol. 9 o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trans. R. F. C. Hull. New Jersey: Princeton UP. 102.
- [5] S. R. Page. (1973). *Faulkner's Woman: Characterization and Meaning*. Deland: Everett/Edwards, Inc., 184-185.
- [6] D. M. Kartiganer. (1979). *The Fragile Thread: The Meaning of Form in Faulkner's Novels*. Amherst: Massachusetts UP. 60.
- [7] Sally R. Page. (1973). *Faulkner's Woman: Characterization and Meaning*. Deland: Everett/Edwards, Inc. 12.
- [8] A. M. Jaggar. (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Totowa N. J.: Roman & Allanheld. 256.
- [9] Cleanth Brooks. (1983). *William Faulkner: First encounter*. New Heaven: Yale UP. 164
- [10] O. W. Vickery. (1981).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A Critical Interpreta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82.
- [11] Richard Chase. (1957). *Collected Works of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22.
- [12] Cleanth Brooks. (1977). *William Faulkner: The Yoknapatawpha Country*. New Haven: Yale UP 69.
- [13] J. Stein. (1960). *William Faulkner "An Interview."* in *William Faulkner: Three Decades of Criticism*. Ed. Frederick J. Hoffman & Olga W. Vicke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80.
- [14] Cleanth Brooks. (1963). "The Community and the Pariah: *Light in August*." *Virginia Quarterly Review*, 39. 236.
- [15] Malcolm Cowley. (1981). ed. *The Portable Faulkn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New York: Viking Press. 723.

최 선 화(Choi, Sun Wha )

[중신회원]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대림대학교 영어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영미어문학, 영화와 문학, 융복합, 4차 산업
- E-Mail : choisw@anyang.ac.kr